

목포시 재정난에도... 주민참여예산 늘었다

시장 재량사업비 축소 불구 민생형 사업 챙기기 앞장 긴축재정으로 3년동안 부채 838억원 상환도 돈보여

목포시가 민선 6기 들어 재정난에도 주민 참여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살림살이를 잘 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포시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인 '가용재원'만 살펴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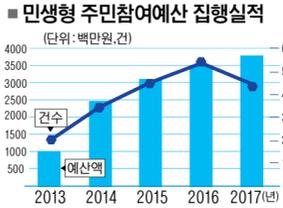
가용 재원은 바뀌 말하면 시장 재량 사업비다. 예산안 수립 시 필요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이 재량으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목포시 예산 규모는 6000~6500억원 대. 이 가운데 사회복지비, 법적 경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을 위해 반영되는 예산이 가용재원이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4, 5기 전임 시장의 재량사업비는 최저 800억에서 최고 1300억 원 대에 달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재량사업비는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무려 4~7배에 달한다.

이처럼 시장 재량 사업비가 차이나는 것은 민선 6기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 위에서 출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최근 5년 동안 목포시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이 없는 반면 매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해 일반회계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전임 시장임기 9년 동안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나 이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 등 운영비 투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자칫 시민들이 제감하는 민선 6기의 사업실적이나 성과가 미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참여예산은 민선 5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그 이유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광복할만한 대규모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외닿는 소규모 민생형 사업들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목포시가 공개한 주민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20건에 10억3000만원, 2014년 35건에 24억9300만원이 집행됐으나 민선 6기 들어서인 2015년에는 40건에 31억3800만, 2016년 55건에 35억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43건에 37억72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목포시가 민선 6기 들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심 노후 도로의 개선 작업을 강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이와 함께 민선 6기 출범 당시 3010억원에 달하던 부채를 지난 3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838억원이나 상환하는 등 목포시의 긴축재정도 빛을 발한다.

2014년 6월말 기준 3010억원에 달하던 통합 부채가 2017년 6월 현재 2172억원으로 감소했다. 차입금으로 435억원을 상환했고 BTL 국비 부담분 및 옥암지구 택지매각 전수금 302억원을 갚았으며 BTL 임대료 시비 부담분 및 기타 부분에서 101억원이 줄었다.

시는 또 연말이 되면 낙찰 차액을 도로·공원·교통 등 공공시설물 설치나 개보수 비용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무더기

로 구입하는 일명 '연말 예산 몰아쓰기'의 오랜 관행을 없앴다.

그 대신 민선 6기는 낙찰 차액으로 매년 10억원의 감채 기금을 조성해 부채 상환에 조기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취임 이후 당장의 인기 보다는 목포의 미래를 위해 예산절감과 부채 상환에 올인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여건이 호전된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맛 테마 서부권 관광루트 띄우기 박차

37억 들여 목포·나주 등 4개 시·군 묶어 맛길 상품 개발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된 관광루트를 서부권으로 이동시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18일 목포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에 따른 '남도 맛 기행'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현재 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 축을 답양을 시작으로 광주·나주를 거쳐 목포에 이르는 새로운 관광 동선을 만들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후 5년간 37억 8000만원이 지원된다.

맛(음식)을 테마로 영산강을 따라 담양, 광주, 나주, 목포 등 4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 하나의 맛길 여행 관광 상품

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비는 4개 시·군에 각각 9억45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매년 6억3000만원(국비·시비 매칭 50%)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목포시 자체 사업과 4개 지역 공동 연계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목포시가 밝힌 사업계획에 따르면 관광환경 개선 사업 분야로 음식문화거리 관광안내 표지판과 남도 맛 기행 통합 관광 안내 표지판, 근대 문화유산 테마거리 종합 안내판 및 방향유도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새우젓 시즌 맞아 목포수협 위판장 활기



목포수협 새우젓 위판장이 6월 새우젓 시즌을 맞아 종매인들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14일 목포수협 위판장에서는 새우젓 중 최고품질인 6월 새우젓인 '육젓'이 1드럼에 1240만원으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목포수협은 국내 최대의 젓 주산지로서 새우젓, 갈말어젓, 황석어젓, 갈치젓 등을 위판하고 있다.

이날 새우젓을 최고가에 낙찰 받은 '송현호' 선주 장귀례씨는 "어획고가 감소하는 어려운 시기에 고가에 낙찰 받게 됐다"며 밝게 웃었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어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판 시 다과 제공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수도물 "민을水 있어요"

정수장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신뢰도 높여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 추진은 물론 대 시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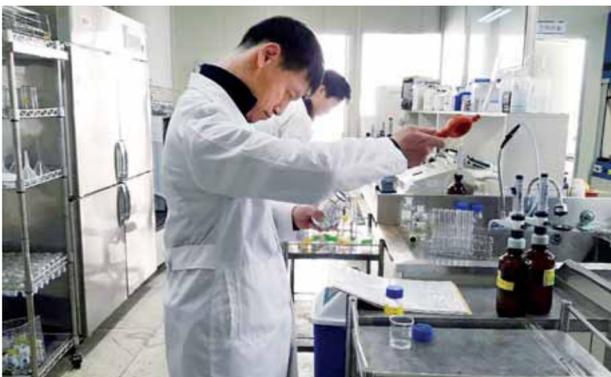
상하수도사업단은 맑은 수도물 공급을 위해 취정수장 및 배수지의 수질정보감시 시스템을 통해 탁도·pH(수소이온농도)·잔류염소 등 동네 수도물의 수질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 주 수도물 공급원인 몽탄 정수장을 대상으로 일일, 주간, 월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탁도 등 6개 항목은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일반 세균 등 8개 항목은 매주,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이어 노후 수도관이 매설된 지역 4개소(11개 항목)와 수도꼭지 39개소(4개 항목)에 대해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꼭지 10개소는 매주 잔류 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수도물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수도물 평가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해 수도물 불신 해소와 신뢰도 제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개선사업 등 주제를 나누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법정 수질검사 대상 시설 466개소와 개인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면 무료로 실시하는 시책도 추진 중이다. 저수조는 연 1회 이상, 옥내 급수관은 2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도행정 신뢰도 제고에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단 관계자가 몽탄 정수장에서 취수한 물에 대해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윤인영 상하수도 사업단장은 "시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수도물의 음용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

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수도물 안심확인제 등 대 시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 서남해안권 시·군, 새 정부 공약 대응 머리 맞대

전남 서남해안권 자치단체들이 새 정부 공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해안권 9개 시·군은 최근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수시회의를 목포에서 갖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서남해안권 공약사항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점화하고 협력하는 방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서남해안권 공약사항 7개와 세부사업 23개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또 전남도 공약사항에서는 제외됐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꼭 반영돼야 할 9개 시군 20개 핵심사업도 추가로 발굴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